

## 도카이도 가도의 시나가와 역참

### 시나가와 역참의 성립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수도 에도와 각지를 잇기 위해 여러 가도를 정비하고, 역참을 설치했습니다. 1601년, 도카이도 가도의 각 역참에서 수송용 말과 인력을 정비했습니다. 이 무렵의 시나가와 역참은 기타시나가와 역참과 미나미시나가와 역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722년, 기타시나가와 역참의 북쪽에 '보행 역참'※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이때부터 세 역참에서 역참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보행 역참(가치신슈쿠): 인부를 제공하는 의무만 주어졌습니다. 이 의무를 '보행 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행 역참이라고 불립니다.

### 시나가와 역참의 벼슬아치

나누시(名主)는 마을 행정 전반을 맡아보던 관직으로, 주로 그 지역의 유력자가 대대로 맡았습니다. 시나가와 역참 중 미나미시나가와 역참의 가가타 가문, 기타시나가와 역참의 우다가와 가문, 미나미시나가와 역참에 속한 미나미시나가와 료시마치의 오시마 가문이 각각 단독으로 나누시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보행 역참은 이다 가문과 나무라 가문이 맡았는데, 훗날 이다 가문이 단독으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 역참의 역할

도카이도 가도의 각 역참은 하루에 인부 100명, 말 100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는 도이야바에서는 도이야(역참장),

도시요리(보좌역), 조즈케(서기), 우마사시, 닌소쿠사시 등의 관리들이 근무했습니다. 우마사시는 말에게 짐을 배분하고, 닌소쿠사시는 인부에게 가마를 메게 하거나 짐을 배분했습니다. 시나가와 역참의 도이야바에는 짐의 무게를 검사하는 중량 계량소가 설치되었습니다.

#### 스케고(助郷)

정해진 수를 초과하여 인부나 말을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 마을에서 인부와 말을 모았습니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스케고입니다. 시나가와 역참의 스케고 마을은 1725년에는 57 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각지의 다이묘※가 자신의 영지와 수도인 에도를 오가는 일이 농번기에 잦았기 때문에, 인마 제공의 명을 받은 마을에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이묘(大名): 1 만석(1 석은 어른 한 명이 1 년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 이상의 영지를 소유하고, 에도 막부에 충성을 맹세한 무사. 일정 기간마다 영지와 에도를 왕래할 의무 및 군사 의무가 있었습니다.

#### 도카이도 가도를 오가는 사람들

도카이도 가도를 지나다니는 것은 영지와 에도를 오가는 다이묘를 비롯해 외국 사신, 쇼군이 마실 차를 운반하는 무리 등 다양했습니다. 한편 서민의 여행은 18 세기경부터 이세진구(미에현 이세시) 등의 신사나 절을 참배하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여정은 도보로, 때때로 가마도 탔습니다. 도적을 만나거나 검문소 통과, 강물이 불어나는 등 여행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 여행 비용

여행에는 숙박비, 차값,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 강을 건너는 비용, 신발값, 신사·절에 바치는 새전(賽錢), 이발료 등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여행 도중에 잔돈이 떨어지면 그 지역의 시가로 환전을 했습니다.

### 파발꾼

에도 시대에 우편 업무를 담당한 파발꾼은 각 역참을 릴레이 형식으로 이으며, 서류·금전을 비롯한 작은 짐을 운반했습니다. 파발꾼에는 막부가 쓰는 사람, 다이묘가 쓰는 사람, 일반 서민이 쓰는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전하면서 통신, 송금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 베니에(紅繪) 행상꾼

베니에는 먹색만으로 그린 판화에 붓으로 주홍색을 칠한 것으로, 우키요에※ 판화의 일종입니다. 이 인형은 1716~1736 년경 베니에를 파는 행상꾼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토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등에 짐 상자를 짊어지고, 그 위에는 옛 요시와라 유곽(지금의 도쿄도 다이토구)의 대문 등의 모형을 얹고, 손에는 몇 장의 베니에가 걸린 작은 대나무대를 들고 있습니다.



※우키요에(浮世繪): 배우·미인·씨름꾼·풍경·화조 등 광범위하게 세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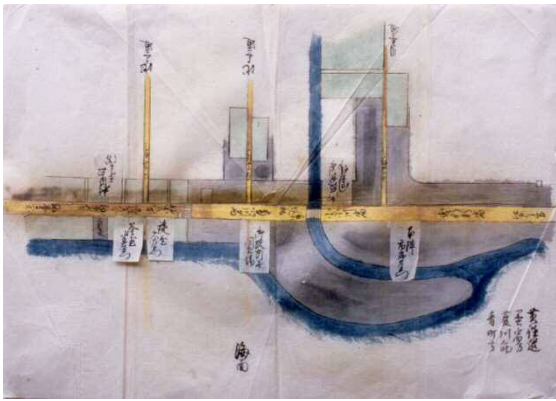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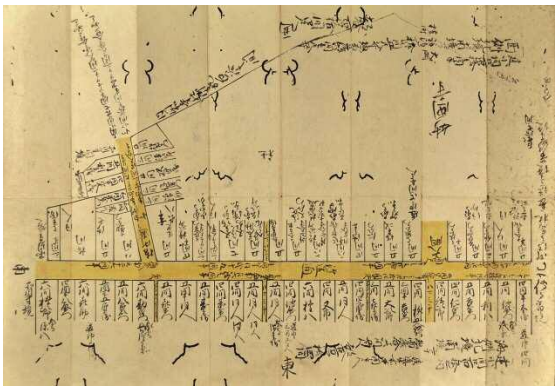
풍속을 그린 회화.

시나가와 역참의 혼진(本陣)

다이묘나 조정 중신 등 신분이 높은 자들이 숙박이나 휴식하는 데 썼던 시설을 ‘혼진’이라고 합니다. 시나가와 역참에는 혼진이 1 채, 혼진의 예비 시설인 와키혼진이 2 채 있었습니다. 건물의 특색은 일반적인 여인숙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문을 설치한 점, 가마를 바싹 대어 출입하기 쉽도록 현관 앞에 한 단 낮은 마루 공간이 마련된 점, 쇼인 양식의 일본식 방을 갖춘 점 등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1811년에 화마로 소실된 후에 재건된 혼진을 복원한것입니다. 현재 혼진터는 세이세키 공원(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2-7-21)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_05 도카이도 가도의 시나가와 역참

<p>1_05_01</p> 	<p>시나가와 역참의 평면도(복제)</p> <p>에도 시대 후기(19세기 전기~중기경) 원사료:릿쇼 대학 소장, 당관 기탁 미나미시나가와 역참의 나누시를 대대로 지낸 가가타 가문이 소장한 평면도. 미나미·기타 시나가와 역참의 도이야바 및 혼진의 대략적인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p> <p>기타시나가와 역참의 도이야바, 중량계량소는 1823년에 화마로 소실된 이후 재건되지 않았습니다.</p>
<p>1_05_02</p> 	<p>묘코쿠지 문젠을 그린 평면도(복제)</p> <p>1807년 12월 이후에 성립 원사료:릿쇼 대학 소장, 당관 기탁 미나미시나가와 역참의 나누시를 대대로 지낸 가가타 가문이 소장한 평면도. 시나가와 역참은 야쓰야마시타 및 묘코쿠지 문젠, 이 두 곳에 마을과 마을의 경계 표시인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를 호지쿠이(榜示杭)라고 합니다.</p>

1\_05\_03



5 대 가도와 4 대 역참 지도

에도에서 각 가도로 드나드는 길목에 위치한 닛코·오슈도추※의 센주 역참(지금의 도쿄도 아다치구), 나카센도※의 아타바시 역참(지금의 도쿄도 이타바시구), 고슈도추※의 나이트신주쿠 역참(도쿄도 신주쿠구), 그리고 도카이도※의 시나가와 역참, 이 네 역참을 총칭하여 ‘에도 4 대 역참’이라고 합니다.

※닛코·오슈도추: 닛코도추는 에도와 닛코(도치기현 닛코시)를 잇는 가도. 오슈도추는 에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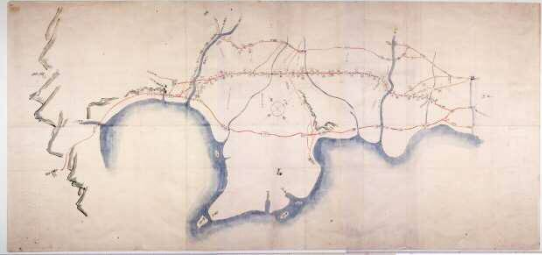
무쓰시라카와(지금의 후쿠시마현 시라카와시)를 잇는 가도.

※나카센도: 에도와 구사쓰(지금의 시가현 구사쓰시)를 잇는 가도.

※고슈도추: 에도와 시모스와(지금의 나가노현 스와군 시모스와마치)를 잇는 가도.

※도카이도: 에도와 교토(지금의 교토부 교토시)를 잇는 가도.

1\_05\_04



나카하라 가도 지도(복제)

에도 시대

원자료: 안도 가문 소장, 가와사키시  
시민 뮤지엄 기탁

에도성 도라노고몬(지금의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도카이도 히라쓰카  
역참(지금의 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을 잇는 나카하라 가도가  
중앙에, 도카이도는 바다쪽에, 그리고  
오야마 가도는 산쪽에 각각 그려져  
있습니다.

1\_05\_05



가상 복원 CG 「도카이도 가도」

제작: 후지 TV 타임 트립 뷰  
프로젝트(당관 협력)

후지 TV 가 제작을 진행하는 「타임  
트립 뷰」의 한 풍경으로서  
복원되었습니다. 도카이도 가도의  
활기 띤 모습을 바다쪽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1\_05\_06



도카이도 측량

평면도(東海道分間延繪圖) 13 권 중  
1(복제)

1806 년

원자료: 우정박물관 소장

에도 막부가 5 대 가도와 이를  
보조하는 가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측량 평면도입니다.

가도의 축척은 1,800 분의 1.

도이야바, 중량 계량소, 혼진,  
와키혼진, 고찰장 등 역참의 주요  
시설을 비롯해 신사, 절, 작은 도로,  
마을명, 지하에 매설된 배수로,  
돌다리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1\_05\_07



고찰(高札) (가상 복원)

고찰은 여러 법령이나 금지 조치를 전달하기 위해 내건 나무 팻말을 말합니다. 역참에는 사람이나 말의 이용 요금을 적어놓은 고찰도 있었습니다. 고찰을 게시한 장소를 '고찰장'이라 불렀습니다. 시나가와 역참의 고찰장은 메구로가와 강에 놓인 사카이바시 다리의 기타니스즈메에 있었습니다.

1\_05\_08



세키후다

에도 시대

세키후다는 다이묘(넓은 영지를 가진 무사)나 구게(조정에서 출사한 귀족이나 고급관리)가 그 숙소인 혼진에 숙박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방문자 이름을 적어 혼진 정문에 내건 것입니다. 이

세키후다는 아키노쿠니 히로시마 번(현재의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주변)의 번주였던

아사노씨(마쓰다이라씨)가 도카이도 어느 역참의 혼진에 숙박했을 때의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 숙박한 연도와 숙박 장소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_05\_09



호지쿠이(榜示杭) (복원)

호지쿠이란 역참이나 마을 등 영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을 말합니다.

이 호지쿠이는 시나가와 역참의 북쪽 입구에 설치된 것으로, 시나가와 역참의 모형과 같은 시기인

1845 년경으로 가정하여

복원했습니다. 제 1 대 우타가와

히로시계가 1833 년경에 그린

「도카이도 53 역참-시나가와 일출」

속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1806 년에

완성된 「도카이도 측량 평면도」에

따르면, 이것 이외에도 시나가와

역참 길가의 호지쿠이로서

미나미시나가와 역참마을 4 초메와

묘코쿠지 몬젠마치 마을의 경계,

가이안지 몬젠마치 마을과 오이무라

마을의 경계에도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 여기에서부터 남쪽은 시나가와

역참마을의 범위

좌: 1845 년 월

우: 여기에서부터 남쪽은 다이칸\*

쓰키야마 모자에몬이 지배하는 범위

	<p>※다이칸(代官): 지방 행정관의 관직명</p>
<p>1_05_10</p> 	<p>시나가와 역참 마을의 집들</p> <p>시나가와 역참 마을의 집들은 다카나와마치(도쿄도 미나토구)와의 경계에서 묘코쿠지 절 문 앞 동네와의 경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형은 고카2년(1845) 경의 그림을 바탕으로 메구로 강을 중심으로 도카이도에 접한 건물들 약 500m 를 복원한 것입니다. 바닥에는 시나가와 역참 마을에 늘어서 있었던 점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p>